

## 피하유피낭종에서 생긴 편평상피암

—증례 보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김 동 석 · 정 재 흥

### 서 론

피부의 낭종에서 악성변화가 일어났을 종종 보고된 바 있으나<sup>1-5)</sup> 피하유피낭종에서 생긴 편평상피암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된 문헌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저자는 54세 여인의 좌측이개 후방의 피하유피낭종에서 생긴 편평상피암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증 례

환 자 : 윤○○, 여, 54세.

주 소 : 좌측이개 후방의 종괴.

현병력 : 환자는 약 30년 전에 좌측이개 후방에 콩알만한 종괴가 인지된 후 서서히 자라다가 최근에 급속히 커진 어른 주먹 크기의 무통성 낭성종괴를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를 내원하였다.

과거력과 가족력 : 특기할만한 사항 없음.

이학적 소견 : 좌측이개 후방에 어른 주먹 크기의 낭성종괴가 촉진된 것외에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었다.

검사 소견 : 입원당시 시행한 혈액검사, 뇨 검사 및 심전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X선 소견 : 두부 단순 X선 촬영상 좌측이개 후방에 비교적 경계가 뚜렷한 연조직 종괴가 발견되었으며 하부 두개골의 침식은 없었다.

수술전 진단 : 피양낭포라는 진단하에 단순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소견 :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장축이 10.0 cm 정도되는 유동성 낭성 종괴가 보였다. 하부 두개골과

의 유착은 없었고, 상부의 두피는 비교적 얇아져 있었다.

병리학적 소견 :

① 육안적 소견 : 적출된 조직은 타원형의 두피가 부착된 피하낭종으로서 크기는 10.0×6.0×5.5 cm 이었다. 낭종의 외면은 연한 붉은 빛으로 경화하였고 일부 횡행근육이 부착되어 있었다. 낭종을 열어보니 절단면에서 누른 갈색의 치즈양 물질이 많이 나왔으며 그 속에는 소수의 희거나 연한 갈색의 미세한 모발이 섞여 있었다. 내벽은 약 반정도가 희거나 연누른 빛의 충실성 종양으로 비후되어 있었으며 이 충실성 종양은 주로 낭의 내부를 향하여 자라고 있었다. 나머지 내벽은 갈색 또는 흰색의 엷은 낭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흰 자화성 물질로 덮혀 있었다(Fig. 1, 2).

② 현미경적 소견 : 본 피하낭종은 여러 부위의 조직 절편을 위해 H&E stain으로 검경하였는 바 육안적으로 얇은 낭벽은 편평상피로 덮혀 있었으며 또 상당한 부위에서는 각화물질에 대한 이물 반응으로 대치되어 있었다. 내벽의 극히 일부에서는 피부에서 보는 infundibular structure와 함께 부속 기관인 피지선, eccrine선 및 apocrine선도 관찰되었다(Fig. 3). 주변 낭벽에서 양성 편평상피로부터 상피내암과 침윤성 편평상피암으로 이행되는 분명한 장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5). 비후된 낭벽의 충실성 병소는 대부분 내부로 자라는 침윤성 편평상피암의 양상을 보였다. 이 악성 조직은 크고 불규칙한 파색소성의 핵과 분홍 및 세포질로 구성되는 일련의 악성 세포들로 이루어졌고 많은 케라틴필 형성도 보였다(Fig. 6). 전 수술 연에는 종양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지 않았다.

### 고 찰

피하유피낭종은 주로 두정부 특히 안와주위에서 생

\* 본 논문의 요지는 1985년도 춘계 학술대회 석상에서 발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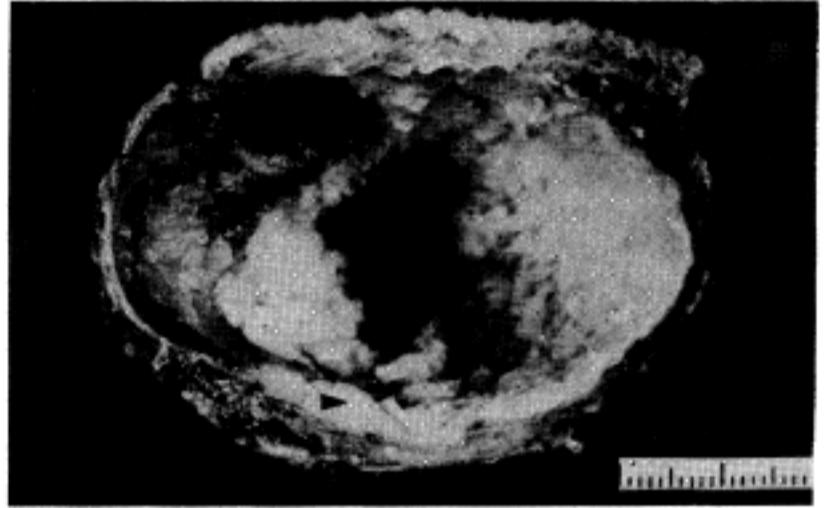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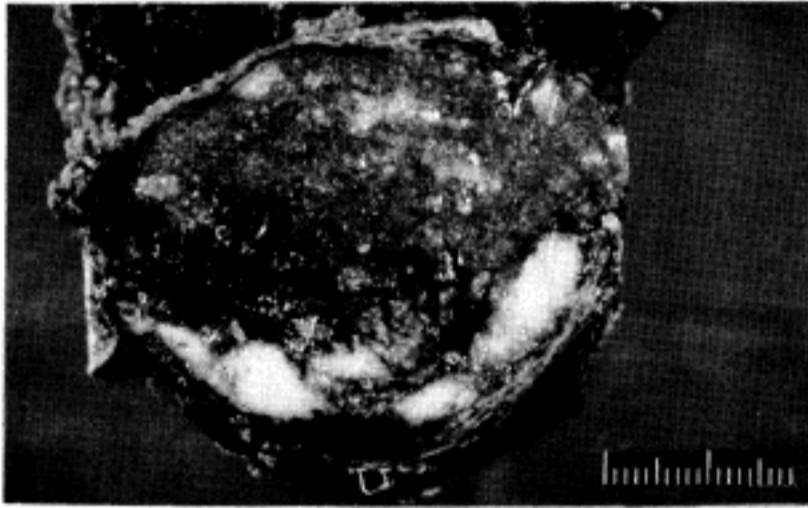


Fig. 1, 2. Gross photographs showing portions of thickened cystic wall replaced by white solid tum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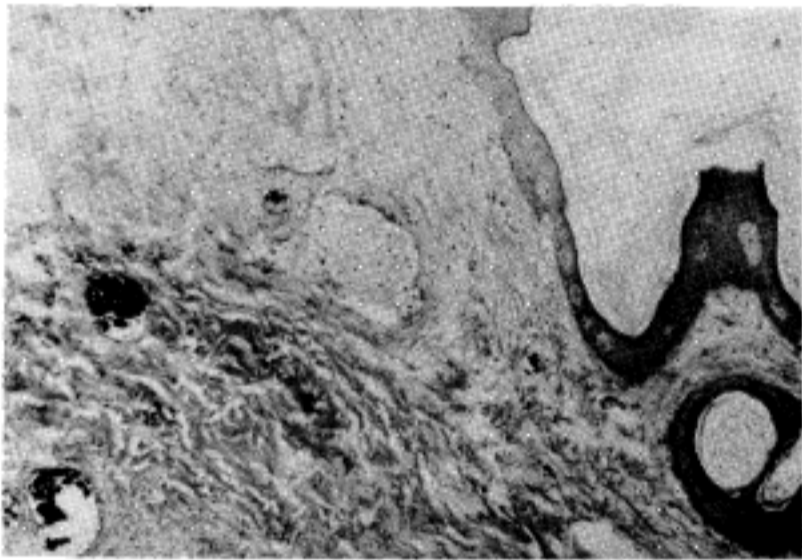


Fig. 3. Microphotograph showing stratified squamous lining epithelium and underlying skin adnex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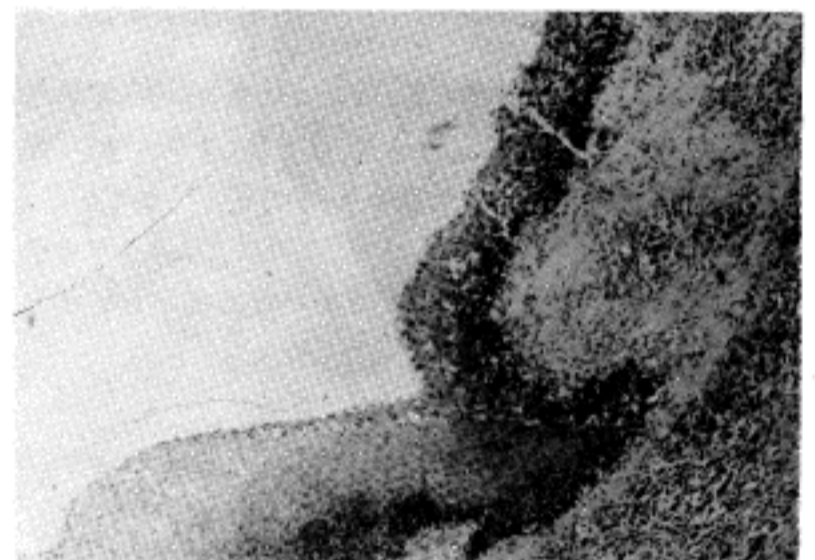


Fig. 4. Microphotograph showing malignant transformation of the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in the upper por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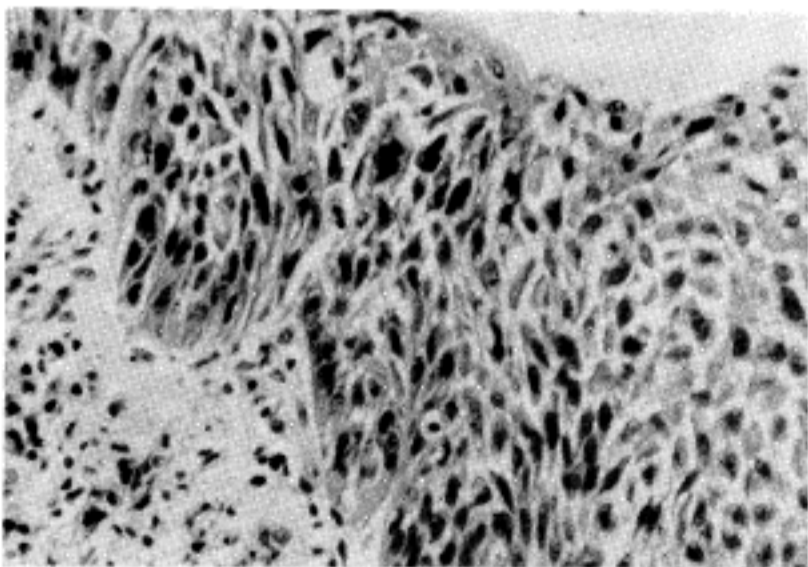


Fig. 5. High power view of Fig. 4, showing portion of carcinoma in si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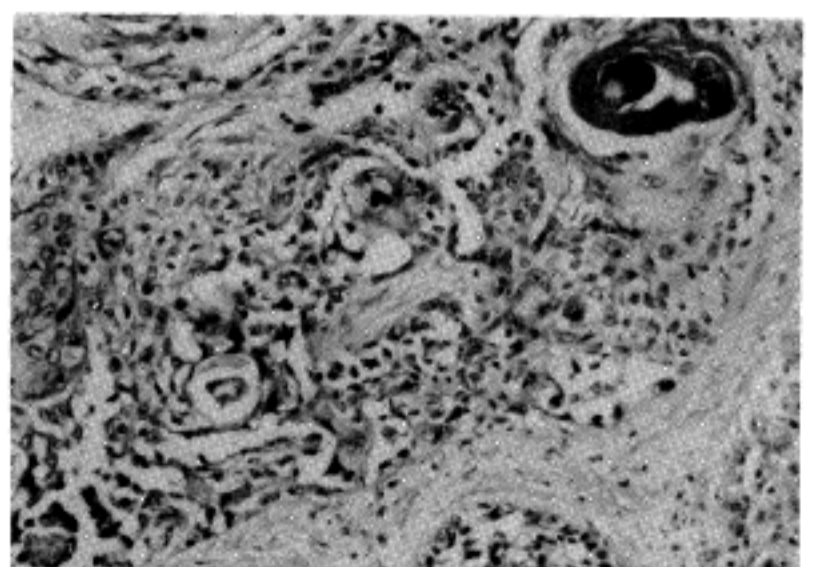


Fig. 6. Microphotograph showing portion of 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 with several keratin pearl formation.

기며 보통 선천성으로 피부조직의 일부가 배태선(embryonic closure line) 따라 격리되면서 생긴 것으로 설

명되고 있다. 피하유피 낭종의 평균 크기는 장경이 1~4 cm 정도이며 보통 내면에 치즈양 물질로 차여 있고

조직 검사상 낭벽하에 피부 부속기를 가져 모발, 피지선, eccrine선 및 apocrine선 순으로 관찰된다고 한다. 또한 Brownstein과 Helwig<sup>6)</sup>등이 보고한 50예의 피하유피 낭종에서는 악성 이행의 증거는 관찰할 수 없었다고 한다.

상피성낭종에서 악성 이행한 경우는 McDonald 등<sup>1)</sup>에 의하여 1%이하에서 9%까지 된다고 하였으며 이들이 보고한 637예의 유상피낭 혹은 피지성낭종에서 기저세포암이 6예, 편평상피암이 1예 발생하였고 평균 나이는 60세였다. 그의 유상피낭에 생긴 암종으로 Delacretaz에 의해 기저세포암과 Shelly 등에 의해 Bowen's disease가 보고되었다. Welch<sup>4)</sup>나 Peden<sup>5)</sup>에 의하면 피지성낭종의 악성변화의 경우 편평상피암이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케라틴편을 잘 형성하는 분화도가 좋은 종양이었다. 또한 이들은 피부낭종의 악성 변화의 빈도가 극히 낮아 피부낭종이 전암성 병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지성낭종에서 외상이나 낭 내용물의 자극이 악성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대해서는 그 의의의 중요성은 논란이 많다.

본 54세 여인의 좌측 이개 후방에 생긴 피하유피 낭종에서 생긴 편평상피암의 육안적, 현미경적 소견은 이등<sup>7)</sup>이 보고한 난소 기형종에서 생긴 편평상피암과 극히 유사하여 악성 이행에 동일한 기전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피부낭종의 악성이행이 극히 드물다고 하나 일단 장기간 종양을 가진 노인에서 최근에 갑자기 커지거나 단단해지면 일단 악성 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술당시 동결절편등을 통한 조기 진단으로 좀더 적절한 치료를 하여 환자의 예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피부낭종의 철저한 육안적 검사, 특히 소결절성 유두상 또는 꽃배추 모양의 병소와 비후된 낭벽은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여러 부위의 절편을 통한 악성 이행부위의 현미경적 관찰만이 더욱더 피부 낭종에서 생긴 원발암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McDonald LW: *Carcinomatous change in cysts of skin. Arch Dermatol* 87:208, 1963
- 2) Delacretaz J: *Keratotic basal cell carcinoma arising from an epidermoid cyst. J Dermatol Surg Oncol* 3:310, 1977
- 3) Shelley WB, Wood MG: *Occult Bowen's disease in keratinous cysts. Br J Dermatol* 105:105, 1981
- 4) Welch JW: *Carcinoma arising in sebaceous cysts. Arch Surg* 76:128, 1958
- 5) Peden JC: *Carcinoma developing in sebaceous cysts. Ann Surg* 128:1136, 1948
- 6) Brownstein MH, Helwig EB: *Subcutaneous dermoid cysts. Arch Dermatol* 107:237, 1973
- 7) 이상숙, 장은숙: 난소 기형종에 생긴 표피암. 대한병리학회지 13:123, 1979

=Abstract=

### Squamous Cell Carcinoma arising in A Subcutaneous Dermoid Cyst

—A case report—

Dong Suck Kim, M.D. and Chai Hong Chung, M.D.

Department of Path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Taegu, Korea

The development of carcinoma in a subcutaneous dermoid cyst is a rare event.

We report a 54-year-old Korean woman in whom excised subcutaneous dermoid cyst showed squamous cell carcinoma in the cyst wall.